

# “에너지절약사업에 국경은 없다”

■ 박정미 기자(psn0304@energycenter.co.kr)



지난 1월 25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한·중 ESCO 사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ESCO사업 협력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자리는 중국의 ESCO관련 정부기관, 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러브콜’을 보내 마련된 것으로 이들은 한국의 ESCO제도와 기술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산업시찰단이다. 시찰단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환경처장인 슈 지꾸앙을 단장으로 중국에너지절약협회(EMCA), 세계은행 GEF 중국에너지절약 프로젝트사무실을 비롯한 북경, 상해, 윈난성 등의 대표적 ESCO기업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중국 측이 각 나라의 ESCO제도와 산업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궁금한 사항을 교환했다. 또 국내의 삼성에버랜드, 화인테크, 케너텍 관계자가 자사의 ESCO사업에 대해 브리핑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의 답방을 희망했으며 향후 ESCO관련 공동기술세미나나 진단 등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중국 방문단 공동단장인 중국에너지절약협회(EMCA) 천슈중 상무부주임을 인터뷰한 전문이다.

## EMCA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지난 2003년에 발족한 비영리단체로 정부와 ESCO를 연결해 주는 중간다리라고 보면 된다. ESCO자금, 교육, 홍보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으로 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팀과 ESCO협회의 역할을 총괄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회원사로 현재 85개가 가입해 있다. 정직원은 11명이며 업무상 임시전문인력이 항시 투입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 ECMA를 중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중장기성 있는 기구로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의 에너지절약기술이나 제도 등 중국이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 쪽의 기업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중국은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에 있어 좋은 투자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

## 중국의 ESCO역사는?

중국은 1998년도에 ESCO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개념만 있고 제도, 기술, 인력 등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도 소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은행과 협약할 때도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았다. 기술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금문제도 심각했다. 그러나 2003년 ECMA가 생기면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특히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의 ECMA를 통한 전폭적인 자금지원으로 궤도에 진입했으며 대기업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에너지절약이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ESCO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력이 부족하고 교육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 ESCO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 현재 중국의 ESCO산업은?

현재 북경, 상해, 윈난성이 ESCO의 3대 시장이며 전국적으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순회 교육중이다. 기업들에게는 에너지절약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이며 DSM이란 방법을 채택해 대기업의 전기, 발전, 수력발전 사업 쪽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 중이다. 또 건설업계와 협력해 ESCO에 도움을 주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낙후되어있고 ESCO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도움으로 상호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갖게 되길 바란다. 사실 한국에 온 것도 기술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또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여러 개 나라가 협력하는 인프라구축방법을 고민 중이다.

## 한국의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한 소감은?

사실 공단에 비하면 중국의 ESCO위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 같다.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에너지홍보교육관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 에너지절약의 조기교육이란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에너지절약기술이나 제도 등 중국이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 쪽의 기업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중국은 에너지절약관련 사업에 있어 좋은 투자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환경, 에너지문제에 국경이 없듯이 에너지절약사업에도 국경이 없다고 생각한다. ☺

